

# “평범한 개인으로 자유 누리며 살고 싶어”

## 이시종 전 충북지사

이시종 전 충북도지사가 지난 30일 12년간 3선의 충북도지사 임기를 마무리 짓고 평범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갔다. 뉴데일리는 지난달 3일 임기 종료를 앞둔 이 지사의 인터뷰를 충북도지사실에서 진행했다. 이 전 지사는 우선 “퇴임을 하면 후배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울집으로 가서 평범한 개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지내고 싶다”며 퇴임 후 생활에 대해 운을 뷔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에만 집중하느라 소원했던 친구, 친척 등 지인들과 만나 이야기도 나누며 관계 회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10여 년 전 충북은 ‘만년 3%, 국토의 변방 작은 충북’에 불과했다. 10년 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충북의 강산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먼저 이 전 지사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선출해주신 분이므로 도정을 잘 이끌어주시길 바라며 믿음을 갖고 있다. 김 당선인이 도정을 잘할 것이다. 김 당선인이 기본이 돼 있고, 국회의원과 장관 경험도 있다. 게다가 서울·경기에 가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고향에다 접목하면 새롭고 혁신적인 그런 것이 나올 것”이라며 기대감이 높았다.

그는 “다만,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라는 기치 아래 도민과 함께 이뤄온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계속 이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김 당선인의 성공적 도정 운영과 충북의 발전을 위해 뒤에서 미려하나마 열심히 응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전 지사는 충북 인재육성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충북은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지금 당장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1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10년간 인재육성을 주장해왔으나 잘 안 됐다. 다른 것은 도정 손아귀에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이뤘으나 인재육성은 도지사 소관도 아니고 해서 못했다”며 크게 아쉬워했다.

특히 “인재육성, 이것 하나만은 해야 한다. 인재육성을 소홀히 해서 충북에 인재가 너무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 26명 중 강원도는 많은데 충북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30년 가까이 ‘우리는 인재 소홀 시대’를 맞이했다. 지금 명문고를 만들어 인재를 육성하더라도 이들을 써먹으려면 30년 걸리고, 지난 30년, 앞으로 30년 등 허송세월이 60년이다. 이 시간이 ‘중세 암흑 세기’나 다름



“30년간 인재육성 소홀 ‘인재 암흑기’  
명문고 설립 인재육성 시급”  
첨단산업·무예마스터십 등 통해 ‘富士’  
“김영환 도지사, 다양한 경험 접목하면 새롭고 혁신적일 것”

없다. 하루빨리 인재를 육성해서 인재육성 소홀 시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방사광가속기를 볼 때마다 우리가 열심히 유치해왔는데 나중에 운영을 누가 할까. 충북사람이 걸 수 있을까. (우리는 인재가 없어 서울, 부산, 전남, 경상도 사람이 와서 방사광가속기를 운영한다.

극단적인 이야기이지만 청소-폴 뽑아주는 정도의 (도민이) 취업을 한다면 방사광가속기 유치가 우스워진다. 충북의 미래를 위해 인재육성은 아주 시급하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나 다음없는 무예마스터십과 관련해서도 그 중요성을 설명했다. “충북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첨단산업에 접근하기면서 문화콘텐츠를 통해 부를 축적해보자는 측면에서 무예마스터십이 시작됐다. 이것이 나중에 대한민국 성지의 개념으로 발전되면 IOC(로잔) 산하에 축구·배구연맹 등이 있는 것처럼 세계 각국의 무예 연맹 사무실을 유치할 수 있다. WBC가 여기에 있으면 산하에 각종 연맹을 끌어들이 수 있다”는 이 지사는 “연맹별로 총회, 이사회, 세미나, 토론회 등이 수없이 열리고, 무예 영화, 무예 소설, 무예 애니메이션, 무예 게임 쪽으로 잘 발전시켜가면 리딩 코리아가 문화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전 지사는 “충북이 장기적으로 첨단산업, 방사광가속기 등은 그 나름대로 나가고 무예 대회, 문화콘텐츠, 무예 제조, 무예 마이스를 통해 산업 측면까지 말고 미래 먹거리를 또 한편으로 만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올림픽에서 끼워주지 않은 각 나라의 무예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축제가 충주세계무예축제이고, 올림픽처럼 시합하지는 것이 무예마스터십”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래서 지구촌에서 양대 올림픽을 만들자 하고 시작한 것이 무예마스터십이고 이것이 제대로 인정을 받으면 올림픽 이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30조 원이 투입될 정도로 올림픽은 워낙 상업성이 강하다. 무예마스터십은 체육관 7개 정도에 300억 원이면 개최할 수 있다. 그래서 무예 올림픽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소개했다. 이 전 지사는 12년간 충북 도정을 맡겨준 도민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그는 “12년간 저를 잘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도민들에게 감사하다. 12년간 충북의 경제가 많이 성장하고 1등 경제로 나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도민과 충북도가 함께 한 합작품이다. 1등 경제를 만들어주신 도민들에게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 ‘제천 세영리첼’ 사상 최악의 분양률… 20%대 ‘충격’

## 평당 1200만원대 배정분양시, “시행사, 사업성 잘 못 판단”

㈜삼태사가 시행하고 에스와이앤씨(주)가 공급하는 충북 제천시 장락동 622-6 일원의 ‘세영리첼’(장락동 에듀파크)이 사상 최악의 분양률이 나왔다. 세영리첼 분양사무실과 제천시에 따르면 564세대 중 20%대(사전 분양 접수율 54%)의 분양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영리첼 분양 관계자는 24일 전화 통화에서 “분양률이 ‘20%대’라며 “사전에 미분양을 예상했었다”고 밝혔다. 세영리첼은 3.3㎡당 1200만 원 대의 고분양가인 데다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설치 등 옵션을 포함하면 1세대당 150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제천 인구 13만2131명(2022년 5월 31일 기준)에 불과한데도 두 개 회사가 1277세대를 동시에 분양한 것도 분양률을 크게 떨어뜨린 요인이 됐다.

GS건설은 제천에 건립 중인 ‘제천자이 더 스카이’(713세대) 분양가는 세영리첼보다 훨씬 낮은 3.3㎡ 1035만 원에 분양했다. 제천시 담당 공무원은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시행사가 사업성을



사진=뉴데일리DB

잘 못 판단한 것 같다. 일주일 전 알아본 결과 564세대 중 101세대 분양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시 공무원이 파악한 분양률은 17.9%로 사상 최악의 분양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 최근 아파트 물량이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면서 지방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 공무원은 “제천자이 더 스카이라도 분양률이 80%대로 알고 있다”고 밝히는 등 제천지역에 아파트 분양이 찬바람이 불고 있다.

제천 A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영리첼과 ‘제천 더 자이’ 분양가가 고분양가인 데다 옵션까지 포함하면 평당 1350만원까지 치솟는다”면서 “두 개의 회사에서 1277세대의 아파트를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것도 미분양의 원인이 됐다. 제천지역에서는 당분간 미분양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 ‘열대거세미나방’ 국내 상륙

## 충북도 “초기에 잡아야”

충북도가 열대거세미나방이 지난달 17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예찰과 방제를 당부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열대거세미나방은 원래 국내에 서식하지 않던 해충으로 2019년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국내로 유입됐다. 이 곤충은 기주범위가 넓은 광식성 해충으로 옥수수, 벼, 수수 등 벼과식물 80종 이상이 피해를 입는데 특히, 국내에서는 옥수수 피해가 매년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도농업기술원에서 열대거세미나방의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옥수수밭에서 열대거세미나방의 피해가 발견됐으며, 피해가 심한 옥수수밭은 피해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최대 1000개의 알을 산란하는데, 특히 애벌레는 조식이 연한 어린잎을 선호하므로 옥수수 유묘는 더욱 예찰에 신경 써야 하며, 만



열대거세미나방. 사진=충북도농업기술원

약 방제 시기를 놓치면 옥수수 수확량이 최대 7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피해 형태는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가 잎을 갉아먹으며 피해를 주는데, 특히, 국내에서는 옥수수 피해가 매년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세한 작물 및 약제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도농업기술원 작물보호팀 이성근 박사는 “열대거세미나방을 가장 효율적으로 방제하는 방법은 애벌레 발생 초기에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온라인 피부 진단 받고 진짜 피부 관리를 시작하세요.

코로나와 마스크로 손상된 피부. 늦기 전에 관리하셔야 합니다.